

제자도의 대가

우리 사회에서 제자 훈련의 대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동유럽에 있었다면, 우리는 청중들의 마음에 매우 소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들이 제자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는 것 외에는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데 대가를 지불하는 나라에서는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서 제가 취할 접근 방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알뜰한 신자는 없습니다. 왜 대가를 지불할까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헌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사실, 제자가 되지 않아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 단계 기독교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단계 기독교에는 특별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읽히는 근본주의 신문 중 하나는 '주님의 겸'이라는 신문입니다. 주님의 겸의 1988년 1월 8일자에서 편집자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를 언급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은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5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되, 너는 가서 어디든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또 다른 사람도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먼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쟁기에 손을 얹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이 구절은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름은 구원에 대한 부름이 아니라 제자도에 대한 부름입니다. 맥아더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도를 구원과 혼동하고 제자도를 다루는 구절을 사용하여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을 따르도록 하신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 작가는 그것이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든 부르심은 구원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제자"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독교 밖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밖에서는 이 단어를 잘 듣지 못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6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어근은 학습자라는 뜻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한 사람과 친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인용문: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며, 심지어 예수의 인격에 자신을 아낌없이 구속하고 죽음과 사랑으로 인한 생명의 선물까지 가야 합니다." 레온 듀포는 신약성경에 대한 그의 훌륭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 친밀한 제자가 되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사랑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유일한 메시지가 제자도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르심은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 복종하라는 부르심, 순종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용서와 평화, 천국을 얻기 위해 순간적인 결단을 내린 다음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간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는 항상 대가를 치르는 헌신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 장 44 절에 나오는 익숙한 비유를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 두었다가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서, 그 상인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샀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모든 삶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찾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보물은 교회입니다. 진주는 교회입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사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밭, 밭이 세상이고 세상에 묻혀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데 왜 밭이 세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밀과 가라지에 관한 다른 비유에서 밭은 세상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 그건 또 다른 비유입니다. 흙의 비유에서 밭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해석에 맞는 다른 비유를 임의로 선택하여 이 비유를 반드시 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단순히 세상에서 밭을 갈다가 우연히 교회를 발견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소중한 교회를 찾기 위해 평생 십자군 전쟁을 벌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구속하시기 전의 교회는 소중하지도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물도 아니었고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의 관점에서 속죄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국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해석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복음을 없애고 싶을 때 해석자는 어디까지 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10 장 21 절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영생을 원하십니까?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보물을 가져가세요.

제자도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마태복음 10 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0 장 32 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यो.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부인할 것이다.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남자를 아버지와, 딸을 어머니와, 며느리를 시어머니와 대적하게 하러 왔으며, 한 사람의 원수는 그의 집안 식구들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아버지 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찾은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전적인 헌신에 대한 강력한 요청.

누가복음 14 장 25 절, "우리가 주와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읽고 "그건 너무 어려워서 구원을 의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2 단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신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분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분께서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8 장 31 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계속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8 에서 예수님은 "나의 참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 장, 마태복음 10 장, 누가복음 14 장, 요한복음 8 장, 요한복음 15 장 등 이 모든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냥 믿고 선물을 받으라 - 그냥 믿고 선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배고픈 상속자'라는 제목의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자도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라고 썼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인용문 끝부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이 좁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요. 그러나 소수가 구원받겠다고 가정하고 싶어하는이 교사들은 제자가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받은 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수준의 영적 삶을 제시합니다. 1 단계는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믿지 않는 신자로,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기로 결심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며, 그들은 종종 그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그런 사람이 2 단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2 단계는 제자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전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소망과 삶의 열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1 단계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에 내린 결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확신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확신이 필요하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믿었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물론 불신과 불순종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차피 무관심한 것에 대해 확신을 얻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주지 않고 단순히 믿고 선물을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신자들은 상을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의 결과는 신자와 제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갑자기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대신 1 단계 신자를 2 단계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분은 전도자가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전도하는 것에서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헌신하지 않는 신자들을 불러서 변화시키라고 부르는 것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모든 기독교인은 제자이며, 모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실하게 따르고 있지만, 모든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도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 "주님, 주님"이라고 말해도 주님은 "나는 당신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 장 66 절처럼 "그분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그분과 함께 걷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8 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어떤 헌신도 기꺼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앞서 읽었던 "이것도 하게 해 주시고, 저것도 하게 해 주시고, 다른 것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인용하거나 인용하지 않은 제자 중 진짜가 아닌 제자는 있지만 제자가 아닌 신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며, 우리 자신의 의지와 육신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2 단계 신자에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진실은 전도 자체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 명령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 무엇을 -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어떻게 제자를 삼으시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 고백으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는 부름을 받았습시다. 지상 명령에 대한 다른 기록 중 하나는 마가복음 16 장 15 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고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지상 명령에 더 많은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하라고 말합니다. 모두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지상 명령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고, 죄 용서를 위한 회개를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삼아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복음을 믿는 사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 삶이 변화되어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려는 동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용어는 신자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초대 교회에 대한 놀랍고 경이로운 기록인 사도행전의 한 구절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6 장 1 절: "이 무렵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주민 히브리인들에게 매일 음식을 대접할 때 그들의 과부들을 간과한다는 이유로 불평이 일어났다. 이에 열두 제자는 제자 회중을 소집하여 '우리가 식탁을 차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열두 제자가 제자 회중을 소집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자들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2 단계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분류해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7 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 제자의 수가 계속 크게 늘어났다." 회심, 신자, 제자 - 같은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11 장에 보면 26 절인 것 같은데, "그를 발견하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니 일년 내내 교회에서 만나 상당한 수를 가르치더라" - 들어보세요 -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 여기서 핵심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크리스천이 신자를 의미한다면 제자는 신자를 의미해야 합니다 - 신자, 제자, 크리스천, 모두 동일합니다. 14 장 20 절, "제자들이 주위에서 있는 동안 예수께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시니" - 바울이 돌에 맞은 신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떠나시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 장 10 절에 "그러므로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신자, 제자, 그리스도인은 모두 동일합니다. 왜 구별할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과 관련된 조건이 있으면 은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구원이 순전히 은혜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전히 은혜로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항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추가하면 은혜에 이러한 모든 인간의 행위가 추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은혜로 구원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구원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려운 요구를 처리 할 신학을 개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이 견해를 고수하는 이유는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다줄 신학을 개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철의 장막 뒤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는 쉬운 신앙이 없습니다. 알팍한 신앙고백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그 대가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짓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데 따르는 대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가르치셨습니다. 헌신할 의지가 없는 반쪽짜리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젊은 통치자처럼 대가를 치르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대가를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이것도 하게 해 주세요, 저것도 하게 해 주세요, 저것도 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환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존 스토틀은 그의 유용한 책 『기초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풍경은 버려진 반쯤 지어진 탑의 잔해와 건축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사람들의 폐허로 흩어져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대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분을 따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계의 큰 스캔들, 이른바 명목상의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기독교 문명이 전파된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양지만 괜찮은 외피로 자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불편할 만큼은 아닌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위대하고 부드러운 쿠션입니다. 그것은 삶의 딱딱한 불쾌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의 편의에 맞게 그 위치와 모양을 바꿉니다. 냉소주의자들이 교회의 위선자들에 대해 말하고 종교를 도피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인용문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4 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탑을 쌓으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 탑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스토틀 박사가 말한 바를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기초를 놓았지만 끝내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건축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투를 벌이러 갈 때, 먼저 앉아서 만 명의 군사로 이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왕과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지 의논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 화친의 조건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꽤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탑을 쌓고 싶었지만 중간에 들어와서 끝까지 완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마주칠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장군처럼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인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탈출 조항에 가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발할 양심도 없고, 두려워할 마귀도 없고, 기소하거나 정죄할 판사도 없고, 괴롭힐 지옥도 없지만,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의 죄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변덕스럽게 화재 보험을 찾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사랑하고, 진정한 제자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매우 불완전하게 사랑하고 불순종하지만, 삶의 패턴은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분께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들은 구원 이전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재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 장의 구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제자도의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 장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아비와 아들을 대적하러 왔나니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도의 모든 요소를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 이제 이것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인가요? 아니면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인가요?"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약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구원에 대한 부르심임이 분명하지만, 이 구절에서 한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10 장 1 절, 32 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1 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미 무엇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열두 제자를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예, 마태복음 10 장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이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도의 의미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마태가 강조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군중들에게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누가복음 14 장에서는 누가는 제자들을 배제하고 군중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일 뿐이며, 구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군중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공개적인 고해성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 장에서 사람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를 알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 중에는 진짜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 이름을 고백하지 않는 진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 장 9 절과 10 절은 "만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용어, 공개적인 고백,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도의 문제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개적으로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과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적대적인 세상과 담대하게 맞설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도 위험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뻔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가 있지만, 한 순간의 실패가 제자의 자격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실패의 순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며,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고 선포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한다면, 그분도 우리에게 그분의 충성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분도 기꺼이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침묵으로,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말로 일관되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공개적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순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된 제자의 특성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알리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둘째, 그 마음을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선호합니다. 34 절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자매와 형제 사이에 칼이 내려오고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는 상황에 대해 "너희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할 수 없고 내게 합당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관계를 기꺼이 끊어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우 강한 언어 - 매우 강한 - 그리고 누가의 언어는 훨씬 더 강합니다. 누가복음 14 장 26 절에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을 죽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처럼(로마서 6 장), 여러분을 구속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를 부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옛 자아를 버려야 하는 것처럼(에베소서 4:22), 육체를 경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처럼(고린도전서 9:27) 말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들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미스코 호르바택이 오늘 밤 이 말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3년 동안 그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지만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좋아합니다. 일주일 전 유대인 가정에서 갓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젊은 여성이 구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소외감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주되심 아래 복종하여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당신은 그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헌신하지 않는 자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시나요? 그분은 거짓 제자들을 쫓아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거짓 신자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혹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의 교회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헌신에 대한 부르심의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이여야 합니다. 38 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찾은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을 때 "오, 이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와서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 것이며, 여러분은 영적 힘에서 여러분을 능가하지 않고 지식에서 여러분을 능가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사의 세월을 통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시간 동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승리에 직면 한 모든 순교자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대에 유행하고 있는 육신적인 회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그런 말씀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아, 그래요, 제 십자가는 1959년형 쉐보레인데 시동이 안 걸려요. 저건 새는 지붕이예요. 저건 제 시어머니예요." 내 십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세기에 십자가는 쉐보레도 아니고, 새는 지붕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닌 한 가지 의미, 즉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명을 찾은 자는 잃을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놓지 않고, 여러분의 육체적 안전을 지키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고, 압력을 받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는 것은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변화의 능력에 묶인 변화된 삶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영을 여러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합당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막과 산, 동굴과 땅속 구멍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개로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현실을 보지 못한 채 견뎌냈으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왕국을 정복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약속을 얻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힘을 잠재우고, 칼날을 피하고, 약함에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강해지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성들은 부활로 죽은 자를 되찾았고,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석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문을 당했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쇠사슬과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고, 반으로 쪼개지고, 유혹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다니며 가난하고 괴로워하고 학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장 전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으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건디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는 죽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겸손함을 잘 표현한 말이지만,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실험이 아닙니다. 구원은 평생의 헌신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그분이 효과가 있는지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평생의 변화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께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이 짧은 시리즈의 맨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영원한 영혼이 위태롭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로 치안 판사 앞에 끌려온 존 번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의 율법에는 두 가지 순종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제 양심상 제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곳에서는 기꺼이 누워서 그들이 내게 행하는 대로 고난을 받겠습니다." 인용문 끝부분. 이것이 제자의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할 수 없으니 그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 다른 노예처럼 일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